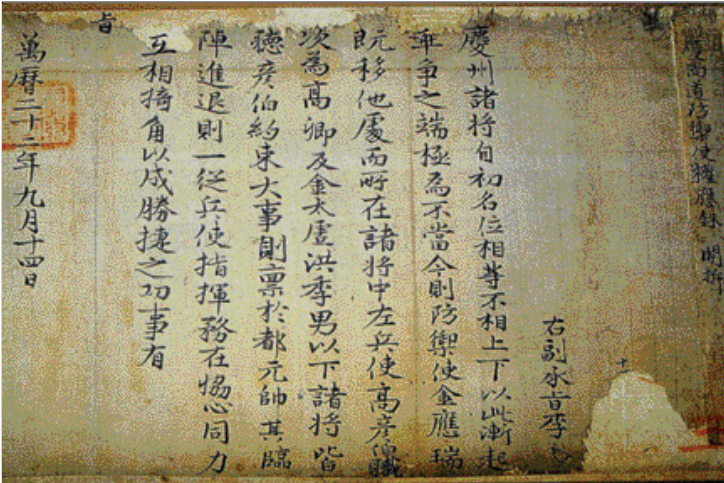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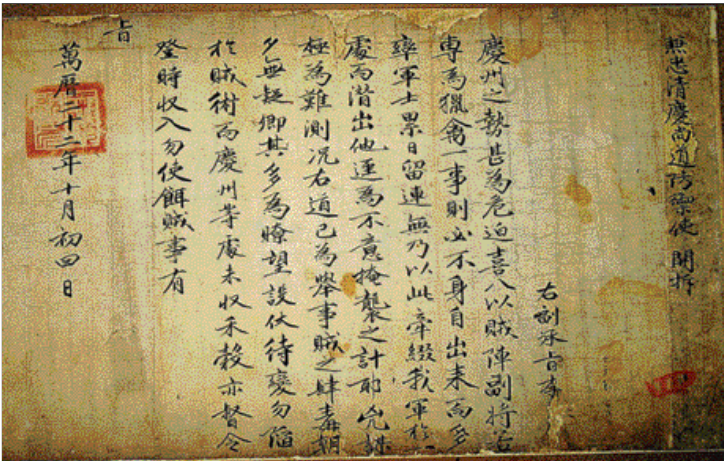
忠毅公 權應銖장군 일대기

(연재 제14회)

權 五 庠
편집고문



▲ 경상좌병사 고언백高彦伯의 장계에 따른 선조대왕의 작전유지



▲ 전선 장병간에 불화를 경계하는 선조대왕의 유지.

2. 임란전쟁 실기[承前] ⑦경주성 탈환전투

• 경주성 탈환전의 발단

임진년(1592년, 선조 25년) 4월 21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적군 제2진 2만 2천8백여 병력은 가위 무인지경을 달리듯 경주성을 덮치게 된다. 당시 경주성은 부윤府尹이 교체되는 시점이었다. 신임 부윤은 강계부사江界府使로 있던 변응성邊應星이었는데, 그때까지 부임하지 않았고 교체되어가는 부윤 윤인함尹仁涵은 후임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전세가 크게 불리한 것을 느끼고는 성밖으로 나가 행방을 감춘다. 부사 아래 판관判官으로 있던 박의장朴毅長이 부근의 병민兵民 수천을 모아 성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군세軍勢로는 노도같이 밀려드는 적세 앞에 그야말로 풍전 등화였다. 박의장 판관이 이끄는 병민은 활 한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도망해버리게 된다. 이렇게 경주성은 전쟁 초기에 허무하게 함락되었다.

경주 북쪽 신령현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천성 인근의 의병을 규합하여 그해 7월 27일 영천성을 수복한 권응수 의병대

장은 바로 경주성 수복전을 염두에 두면서, 영천전투에 군량과 병력으로 도움을 준 경주의 의병장 손덕침孫德沈에게 보낸 감사서신에, “지금 또 우리의 의병의 군기軍旗가 동쪽으로 월성月城(경주)을 가리키지만 병사들은 피곤하고 양식은 떨어졌으나, 바라건대 모름지기 더욱 노력을 더하여 서로 도와야 할 처지이니 어떠합니까”라고 쓰고 있다. 이는 영천성을 탈환하자 바로 경주성 탈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권응수 의병장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송으로 도망가듯이 피신했던 경상좌도병마절도사 박진朴晉은 청송에서 권응수 의병장과 주변 여러 고을의 수령을 불러모아 군軍을 재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경주 북방 안강安康으로 나와 있다가 영천성 탈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치열한 전투로 폐허가 된 성안을 돌아보고서는 자기도 경주성을 탈환함으로써 전공을 세워보려는 조금 한 의도를 다지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몇 차례 권응수 의병장을 자기 휘하麾下에 두어 전공을 세우려던 의도가 좌절된

것에 아쉬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박진 병사는 권응수 의병대장을 휘하의 군관軍官으로 앞세워 경주성을 탈환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한편 의병을 가장 많이 모집하고도 영천성 탈환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영천 의병장 정세아鄭世雅도 경주성 탈환전에는 반드시 참여하여 의병장으로 서 전공을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의도와 동기가 다른 동상이몽 관계에 있던 이 세 주역主役의 의지가 합해치른 것이 경주성 탈환전이었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전열戰列을 갖춘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었다.

• 경주성 탈환전의 경과

전쟁초에 경상좌병사로 있던 이각李瑬은 부산진성이 함락되자 바로 도망하였다. 그해 5월에 이각이 도원수 김명원에게 체포되어 군률에 따라 주살誅殺된 후 갑자기 밀양부사에서 경상좌병사가 된 박진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데는 서툴렀던 탓으로 권응수 의병장을 휘하에 넣어 전공을 세워보려고 몇 차례 시도하게 된다.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안강安康에 머물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중 권응수 의병장이 의병대장이 되어 영천성 복성전을 성공리에 끝맺자 병마절도사의 직권을 행사해 권응수 대장을 휘하의 군관으로 임용하여 선봉장을 삼아 경주성 탈환전을 치르려는 결심을 굳힌다.

영천인 진사進士 정세아는 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많은 의병을 모집하였다. 영천 주변 여러 고을에서 연달아 의병이 일어나자 이를 통합 지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을의 유지有志 60여인의 지지를 받아 연명으로 임금의 명령에 따라 의병활동을 독려하는 초유사招諭使가 되어 나와 진주에 머물고 있던 김성일에게 의병대장을 지명해 달라는 건의를 하게 된다. 그때 김성일은 무과에 급제한 권응수 의병장이 이미 신령新寧縣 주변 여러 곳에서 왜적과 싸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터라 곧바로 권응수 의병장을 의병대장으로 지명했다. 이로써 권응수 의병대장이 영천 주변 열여섯 고을의 의병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때의 전후 사정을 미루어볼 때, 이는

사실상 경상좌도의 모든 의병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때 김성일 초유사가 경상좌도의 의병장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정세아 의병장을 의병대장으로 지명했었다라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영천복성을 둘러싼 말썽은 없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의병대장이 된 권응수 장군은 당시 최우선 목표가 되어 있던 영천성 복성을 위한 진용을 서둘러 갖추게 된다. 그 진영에서 당시 나이가 57세로서 가장 많은데다 무인武人도 아니던 정세아 의병장을 정담鄭潭과 함께 전투 기록 유지 등 군사 지원 업무를 맡는 찬획중사贊劃從事라는 직책에 배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세아 의병장은 영천성 복성전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게 되고 남아 있는 여러 기록에서도 당시 찬획중사의 역할은 정담이 홀로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듯하다. 이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세아는 모든 군사를 권응수에게 붙이고 전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직賞職에서 제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적數적으로 제일 많은 의병을 일으키고도 가장 중요시되던 영천복성전에 참여하지 못한 정세아 의병장으로서의 영천성전에 이어 바로 벌어지는 경주성 탈환전에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앞세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사정은 때마침 큰 전공을 세운 권응수 의병대장을 앞세워 자신도 전공을 세워보려는 경상좌병사 박진의 뜻과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7월 29일 영천성 현장을 둘러보고 안강의 본대本隊로 복귀한 박진 병사는 곧 군사를 정비하여 경주성 탈환전에 착수했다. 그는 권응수 의병대장을 휘하의 군관軍官으로 삼아 경주 판관 박의장과 함께 선봉先鋒으로 배치하고 정세아 의병장으로 하여금 의병군을 거느리게 하였던 듯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응수 의병대장의 전공을 다소라도 더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

와 같은 뜻에 따라 박진 병사는 모든 군사를 그해 8월 중순에 경주 북쪽 계연鷄淵(현재의 모량역牟梁驛)에 집결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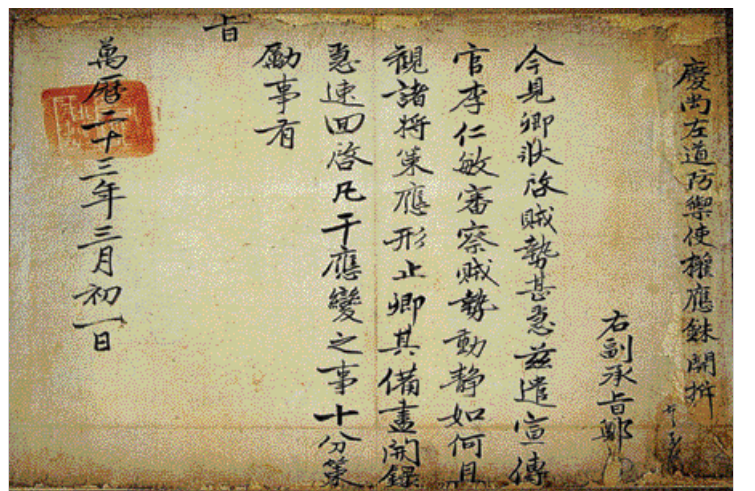
이때 권응수 의병대장은 경주성 탈환을 위한 전투 준비를 하면서 8월 6일에는 정병精兵 수백을 이끌고 영천 서쪽에 있는 적군을 제압하고 경주성 복성전을 상의하고자 대구부사大丘府使 윤현尹晄을 찾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하양河陽에 진을 치고 하룻밤을 머물며 하양 남쪽 자인慈仁에 주둔하고 있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밤이 깊었을 때 금호강변에서 잠자던 새들이 일시에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군사를 깨워 주변을 정찰시켰더니 과연 적군이 야습夜襲하고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었다. 이에 전군을 출동시켜 자인으로 접근하니 적군은 경주쪽으로 도망해 갔다. 다음 날 아침 권응수 의병군도 경주계연으로 진군하게 되었다.

이때 경주성에는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의 부장部將 다가와 나이키多川内記가 병력 미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던 듯하다. 권응수 의병군에 쫓겨 경주로 도망해간 경산과 자인에 있던 적군뿐 아니라 군위軍威와 비안比安 등지에 있던 적군도 양산梁山과 울산蔚山에 있던 적군과 서로 연락하여 그 중간 위치인 경주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당시의 전세가 경주일전慶州一戰이 불가피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경주 북쪽 계연에 도착한 박진 병사는 전투 편제編制를 재편했다. 총지휘는 병사 자신이 맡고 권응수 의병군은 그 휘하에 넣어 경주 판관判官으로 있던 박의장朴毅長과 함께 군관을 삼아 선봉先鋒을 맡게 하고 정세아 의병장만 약 5천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거느리게 하여 독자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때 모인 군사는 박진 병사가 거느리는 경상좌도 16열읍列邑의 관군과 의병을 합해 약 1만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해 8월 20일 밤에 계연에

7면으로 계속



▲ 충청·경상 방어사 권응수 장군에게 경주의 정세가 절박하니 대비하라는 작전지시.